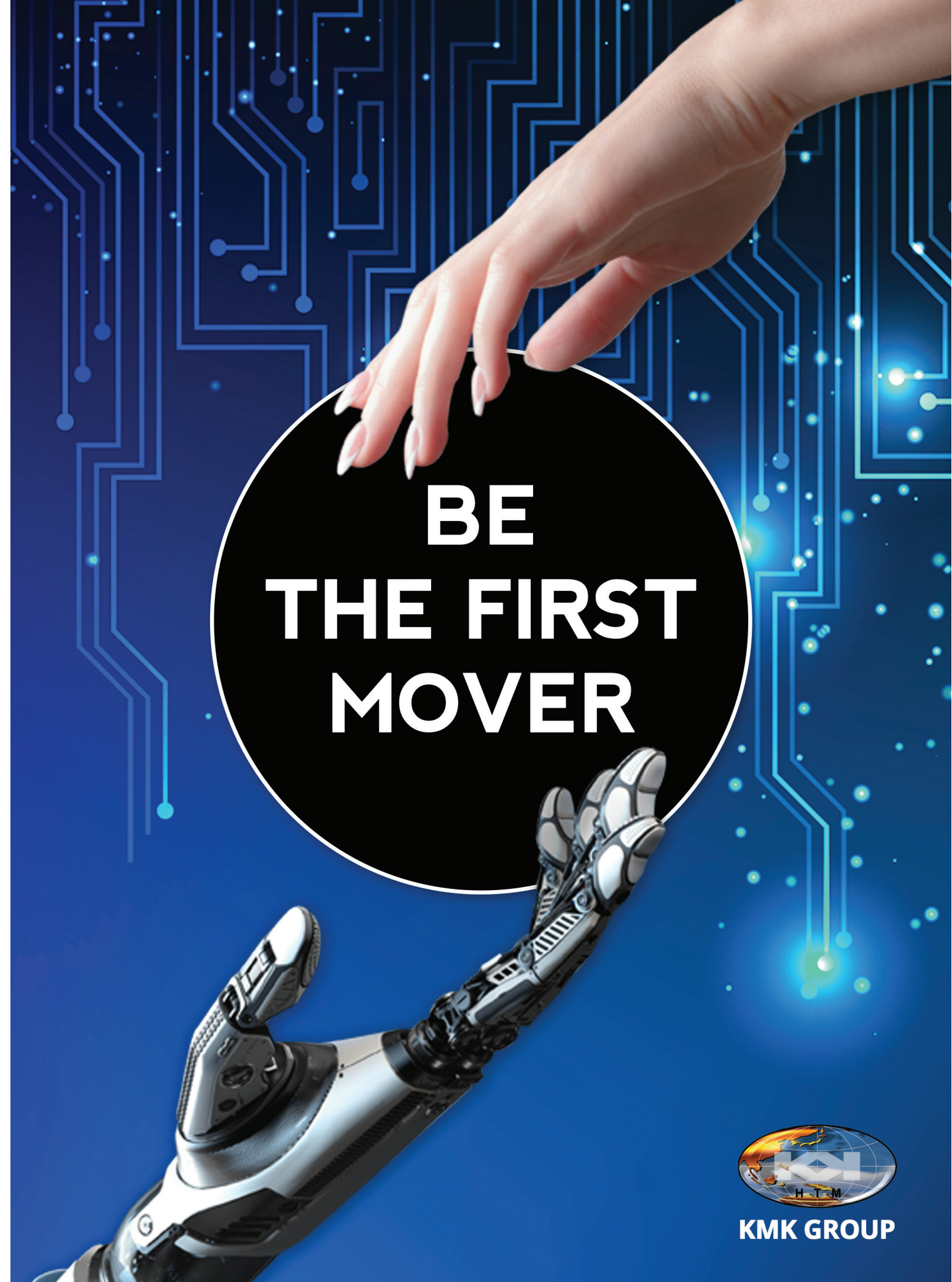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8 2025 VOL. 350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한인뉴스
월간 한인뉴스 8 · 2025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헌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양진영 작가
롬복섬의 중앙에는 해발 3,700m의 린자니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부로 가는 길, 해발 3천 미터 부근에는 칼데라 호수(서가라 아낙)가 있고, 그 호수 위로 적도의 구름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와 프랑스가 밀월관계가 된 이유

10 [김재훈의 '세무 TALK']
회계 장부의 중요성

11 [디카시 풍경 18]
틈, 건기와 우기 사이 | 김동환

12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뉴스 브리핑

16 이달의 PREVIEW

18 [제92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강좌]
한 잔의 커피로 떠나는 미각 여행 | 이주실

19 [솜씨에 반하다]
격려 | 김수남

20 [재인도네시아 한인 청년회]
찌부부르 고아원 여름 봉사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김종헌 | **편집인** 양태화 |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이영미 | **편집위원** 최인실, 조은아, 김영섭, 송기섭, 노병진, 송호진, 고광희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 **인쇄** 알림인도

contents

2025. 8. 통권 350호

2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24]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6 [인도네시아에 대한 천 개의 이야기]
격동의 시대, 두 개의 독립을 좇았던 조선인들의 흔적 | 조연숙

29 [주아세안대표부]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해답을 찾다, AI… 서울서 활용 방안 논의

30 [서상영의 한방칼럼 28]
생활한의학 11 - 약물 오남용

34 [손상현의 자카르타의 아침]
마음처럼 되지 않는 골프는

38 자카르타 주정부, 골프 제외한 상업 스포츠에 오락세 부과

39 [JIKS 소식]
“의료 전문가 초청 특강”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초청 진로 및 건강 특강 개최

40 [행복에세이]
놀라운 자연의 힘

42 [인터뷰 2.0]
강진호 「청담가든」 대표 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 (KRAI) 회장

48 [KF뉴스]
반둥서 ‘2025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발전 세미나’ 성황리 개최

49 긴급전화번호

50 [학생기자] 한동훈
다름을 넘어 한마음으로 모인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52 [Michelle’s Hyaang the Yoga 11]
발리에서 요가 자격증 따며 한 달 살기 ②

54 [취미부자 열정고수 5]
렌즈 너머 삶의 강인함을 담다 | 양진영

56 [아증의 코-인사이드 3]
고양이 카페부터 콘서트까지, 자카르타 힐링 1박 2일

58 [I K Wind Orchestra]
I K Wind Orchestra, 인도네시아 단비학교와감동의 ‘One Day Music Camp’ 개최

60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ACS Jakarta
| 박승헌

64 [반려동물 랜선집사 24]
우리 집 보안관 코코 12년의 사랑 이야기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48회]
종교법 4
| 이승민 변호사

68 생활정보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인도네시아와 프랑스가 밀월관계가 된 이유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는 건국 이래 초대 부통령 모하맛 하타가 주창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Free and Active Foreign Policy)'을 견지해왔다. 이는 어느 진영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협상하는 '능동적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수하르토 정부부터 조코 위도도 정부까지 이러한 비동맹 균형 외교 정책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 모두와 가깝게 지내는 형태로 이어져 왔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경향을 보여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외교 철학은 이러한 하타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21세기 다극 체제에 맞게 확장한 형태로 평가된다. 그가 내세운 "친구는 천 명도 부족하고, 적은 한 명도 많다"(One thousand friends too few, one enemy too many)는 슬로건은 단순한 실용주의를 넘어, 다극 질서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균형 외교'를 의미한다. 이는 하타가 꿈꾸던 외교 노선의 현대적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의 '밀월관계'는 최근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과 대규모 군사 협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상징적인 고위급 교류가 인상적이다. 지난 7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혁명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인도네시아군이 주빈국 자격으로 첫 참가하며 국제사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육·해·공군 및 경찰, 사관생도 등 총 450여명에 달하는 병력이 파견되었는데, 이는 역대 혁명기념일에 외국 파견 병력 중 최대 규모이다. 이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된 프라보워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귀빈석에서 인도네시아군에 경례를 보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둔 연설에서 "우리와 함께 제국주의와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지목했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참여와 프랑스 정상의 직접적인 언급은 양국 관계의 특별함을 잘 보여준다.

둘째, 실질적인 국방 협력 강화이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수교 75주년을 맞이했으며, 국방 협력은 양국 관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2년 프랑스산 라

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첫 6대는 2026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최근 자주포, 경프리깃함, 레이더 및 잠수함 등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5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당시에도 양국 정상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와 잠수함 등 전략적 무기를 들여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군 장성 출신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외교를 안보 전략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데, 이러한 군사 현대화 추진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프랑스와의 국방 협력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문화적 교류와 유대 강화 노력이다. 지난 5월 29일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방문으로 마무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보로부두르 사원을 함께 탐방한 것은 양국 간 문화 · 관광 분야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적 유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상징적인 문화유산 방문까지 동행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특별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행보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개인적 배경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프라보워 대통령의 개인적인 배경 또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의 관계 심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951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유력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대통령 밑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 수미트로 조요하디쿠스모이고, 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국립은행(BNI)의 설립자 마르고노 조요하디쿠수모이다. 마르고노는 네덜란드 식민 정부 하에서 고위 공직을 역임하며 금융 세계를 깊이 이해했고, 인도네시아 독립 후 민족주의적 신념으로 BNI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이처럼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대표 정치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로서, 귀족 계급인 쁘리야이(Priyayi) 출신인 할아버지 마르고노가 네덜란드 식민 정부 하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누렸던 것처럼, 그 자신도 특권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 그의 아버지 수미트로가 1958년 수카르노 정권에 반대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I)에 가담한 후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하며,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하면서 깊은 이해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험과 언어 능력은 그가 프랑스와 같은 서구 국가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아들인 디딧이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파리에서 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국 간의 문화적, 개인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략적 필요와 개인적 유대의 시너지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의 '밀월관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추구하는 '전략적 균형 외교'의 한 단면이자, 그의 개인적 배경과 유대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특히 군사 현대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파트너를 다변화하려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기술 ·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제국주의와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해외 유학 경험과 다국어 능력, 그리고 아들이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가족적 연결고리가 더해져 양국 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편의를 넘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프라보워 시대의 외교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며, 프랑스와의 관계는 그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양국 간의 강력한 유대는 앞으로도 지정학적 이익, 경제 실익, 그리고 기술과 자원으로 대표되는 파트너십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제1회 2025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2025년 8월 15일 (금)
오전 11시 30분
Damai Indah Golf (PIK)

문의: 한인회 사무국
021-521 2515
Korasos (카카오톡)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Google Forms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계 장부의 중요성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회계장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기록부로서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된다. **주요부란 회계장부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말한다. 분개장은 거래를 처음 기록하는 장부로서 원시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총계정원장**은 분개장에 기록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회계 장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자에게는 회계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28조 1항)

결국 자영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 장부 의무로부터는 제외되지만 보조 기록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로 순소득 계산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조세법 규정에 의해 허가된 사업활동 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활동이나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는 보조 기록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8조 2항)

상기에 언급된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신뢰와 명료성 또는 사실성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인도네시아에서 라틴 문자, 아라비아 숫자, 루피아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어 또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어로 기장되어야 한다. (제 28조 4항)

상기 규정에서 화폐단위는 루피아,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할 경우 신청한 화폐단위와 다른 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회계기간 개시 3개월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로 기장한다. (제28조 5항)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법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통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장부 방법이 변경 및/또는 적용 회계 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6항)

회계 장부는 최소한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제28조 7항)

결국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을 갖추고 복식부기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겠다.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장부, 보조 기록 및 기타 서류 또는 전산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관된 회계 장부의 자료 처리 결과를 포함한 기타 기록 및 서류들은 인도네시아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개인납세 의무자의 거주지, 또는 법인 납세 의무자의 소재지에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 28조 11항) 장부 및 기타 증빙서의 보관 연한은 10년이라고 하겠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무제표만 첨부되지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는 기본적인 장부, 기록, 서류 또는 소득, 사업활동, 과세 대상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보여주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기법 제 29조 3항). 요청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납세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3a항)

상기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확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 대상 소득은 조세법 규정에 의거한 직권으로 계산한다. (제 29조 3b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총계정원장으로 기록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데이타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틈, 건기와 우기 사이

이별의 씁쓸함에 젖어 내리는 눈물
건기와 우기의 틈 어딘가에 묻어두고
과정 속에서 빛나던 우리의 웃음들만
시간의 서랍장 제일 윗칸을 살포시 열어
헌 일기장 속 끝 페이지에 진하게 남겨본다

詩 이미지: 김동환

2025 년 7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 비즈니스>

인니 경찰, '고급 쌀'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거 적발

보통 등급의 쌀을 고급 쌀로, 4.5kg짜리를 5kg라고 속여 폭리를 취한 쌀판매업체들을 인도네시아 경찰이 적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12일 안디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의 신고에 따라 26개 프리미엄 쌀 브랜드를 허위 라벨 표시 및 가격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 식품 전담 태스크포스가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브랜드들이 보통 또는 저품질 쌀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 당국은 이번 수사를 불법 유통망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피 아세가프 경찰 식품 태스크포스 팀장은 "수십 개의 다른 쌀 브랜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4개 주요 쌀 회사 책임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가짜 중량 표시와 정부 최고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저품질 쌀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은 다음과 같다: △Wilmar Group △Food Station Tjipinang Jaya △Belitang Panen Raya △Sentosa Utama Lestari 등이며, 이들 회사가 판매한 브랜드에는 △Sania △Sovia △Fortune △Siip △ Alfamidi Setra Pulen △Ayana 등이다.

헬피 준장은 "만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내 쌀 유통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다름 소비재도 포장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달라스대학교의 농업 전문가 무함마드 막키는 "경찰의 개입은 정부의 식량 안보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조치"라며, "식품 태스크포스와 농업부 간의 협력은 식품 분야의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으로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붕카르노대학교의 법률 전문가 후디 유숩은 일반 쌀을 프리미엄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디 암란 농업부 장관은 200개 이상의 쌀 브랜드가 허위 표시 및 가격 부풀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가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암란 장관은 "이번 수사는 7월 10일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군, 프랑스 혁명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450명 대규모 파견

마크롱 "반제국주의 공유,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자"

인도네시아군이 지난 7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혁명기념일을 맞아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주빈국 자격으로 첫 참가하며 국제사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퍼레이드에는 육 · 해 · 공군 및 경찰, 사관생도 등 총 451명이 참여해 역대 혁명기념일 외국 파견 병력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된 1789년 7월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매년 대규모 군사 행진을 한다.

이날 행사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인도네시아군은 개막 부대로 나서 'Maju Tak Gentar(겁 없이 전진)' 행진곡에 맞춰 당당하게 행진했다. 부대원들은 상어, 표범, 바다코끼리, 독수리 등 각 군을 상징하는 동물 머리 장식을 착용해 독창적인 군복을 선보였으며, 기수대는 인도네시아 국기와 프랑스 삼색기를 나란히 들고 행진했다. 행사 주빈으로 초청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귀빈석에서 인도네시아군을 향해 경례를 보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육군 장군 출신으로, 최근 프랑스와의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스티유 데이를 하루 앞둔 연설에서 "우리와 함께 제국주의와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와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지목했다. 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와도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올해로 인도네시아와 수교 75주년을 맞았으며, 국방 협력은 양국 관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첫 6대는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최근 자주포, 경프리깃함, 레이더 및 잠수함 등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카르타 동서 연결 지하철 2호선 사업 착수

자카르타 동부와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MRT) 2호선 1단계 사업이 최소 50조 루피아(약 3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운영사 PT MRT Jakarta가 밝혔다. 이번 자카르타 2호선 지하철 사업에서는 동부자카르타 메단 사뜨리아(Medan Satria)에서 서부자카르타 또망(Tomang)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4.5km의 동서 노선이다. 노선에는 21개의 역과 차량기지가 포함된다.

마울리나 웨니 MRT 자카르타 건설본부장은 지난 10일 "국제 공개 입찰은 오는 10월 쯤에 실시될 예정이며, 자금은 일본 측 대출기관에서 지원받는다"며 "일본 기업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입찰은 약 1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6년 뀌땅(Kwitang) 지역 인근에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정지작업, 기반시설 이전, 초기 건설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자카르타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1단계 MRT 구간 중 북부 연장 구간(호텔 인도네시아 원형교차로~꼬따 뚜아)도 현재 공정률 50%를 달성했다. 총 연장 6km, 예산은 12조 루피아(약 7억 3,900만 달러)이며,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인터뷰] 홍문표 aT 사장 "할랄인증은 장벽이 아닌 기회"

"K-푸드, 인도네시아를 넘어 중동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지난 7월 11일 aT 자카르타 지사에서 열린 데일리 인도네시아 등 한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할랄 인증 의무화는 무역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K-푸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농어촌 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고 강조하면서 "K-푸드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이다. 농민에게는 소득이고, 나라에는 식품 영토 확장이며, 소비자에게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 사장은 2024년 8월 aT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해왔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208개국에 농수산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만 명을 가진 거대한 시장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홍 사장은 전날 열린 '2025 Jakarta 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 개막식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명이 넘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할랄인증 의무화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aT는 인증 취득부터 현지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전문가를 초청한 '할랄인증 대비 세미나'도 개최돼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BPJPH는 2019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증서 발급과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정 협정을 담당한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 압둘 샤쿠르 BPJPH 국장,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아디 루크만 인도네시아 식음료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K-푸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압둘 샤쿠르 국장은 "한국 농식품의 할랄 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강현 회장은 "현지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증부터 유통까지… aT의 다각적 지원

aT는 할랄인증 취득 비용의 7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한 현지 관계기관과의 협력 확대, 인증 가이드 세미나 개최, 바이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 이전까지 수출업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홍 사장은 "횡성한우도 할랄 방식으로 생산돼 올해 10월부터 두바이 수출이 시작되며, 중동 바이어들의 반응도 좋다"며, "K-푸드는 인도네시아를 거쳐 중동까지 연결되는 식품 외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한류는 새마을운동에서 태권도, K-드라마와 K-팝을 거쳐 이제는 K-푸드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한국의 농수산식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3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가공식품 70%, 신선농산물 10%, 수산물 20% 비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aT 자카르타 지사는 호주, 뉴질랜드까지 관할하며 전 세계 21개 지사와 함께 'K-Food Fair' 개최, 바이어 발굴, 공동물류, 온라인 홍보 등 종합적인 해외시장 개척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고령화, 그리고 품종개량

2008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홍 사장의 7대 혁신방향은 #친환경 · 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 · 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 광역화 #유통구조 개선 # '식량무기화 시대' 쌀 주식개념 5곡으로 전환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확산 #농수축산식품 수출 확대 등이다.

홍 사장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이후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개량 사례도 언급했다. "배추의 재배 기간이 65일에서 40일로 단축된 것은 연구개발의 성과이자,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농민의 평균 나이는 73세로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aT는 수출지원뿐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품질 혁신을 위한 유통 지원 예산 확보와 기술투자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 사회>

인도네시아 경제의 아버지 '수미트로'독립혁명에서 신질서까지…

아들 프라보워 대통령의 뿌리를 읽다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정치적 뿌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의 아버지, 수미트로 조요하디쿠수모(1917~2001)는 인도네시아 현대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국가 경제정책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수미트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고위 관리였던 마르고노 조요하디쿠수모의 장남으로 태어나, 네덜란드 경제학교와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제학 박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귀국해 외교사절로 활동하며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독립 외교를 이끈 그는, 1950년대 이후 다수 내각에서 산업무역부 장관, 재무장관을 역임하며 초기 산업화 전략과 외자 유치를 주도했다.

특히 '벤텡(Benteng) 프로그램'을 통해 토착 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국영은행 창설 및 중앙은행 국유화에도 관여하는 등 경제 구조 개편에 앞장섰다. 하지만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를 지지한 탓에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1957년, 수카르노 정권과의 갈등 끝에 그는 서부 수마트라 반란조직인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I)에 가담해 '경제장관'으로 활동했고, 이후 미국 · 영국과 접촉하며 국제 여론전을 이끌었다. 반란 실패 이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며 반(反)수카르노 운동을 펼쳤다. 1966년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자 그는 극적으로 귀국해 무역장관으로 복귀했다. 이 시기 자본재 수입 장려, 원자재 수출 제한 등 산업화 기반 정책을 도입했고, 자신의 제자들로 구성된 '버클리 마피아'는 이후 수하르토 체제의 경제정책 주역으로 성장했지만 1970년대 들어 수하르토와의 정책적 갈등으로 연구기술부 장관으로 전보된 뒤, 1978년 정계에서 완전히 퇴진했다. 이후에는 기업 자문과 정책 비판을 병행하며 경제계에 영향력을 유지했다. 특히 아스트라의 도요타 수입 독점권 획득을 지원하는 등 인도네시아 재계에도 깊이 관여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부패와 제도적 결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탈규제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생전에 13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긴 그는 2001년 심부전으로 별세했으며, 자카르타 카렛 비박 묘지에 안장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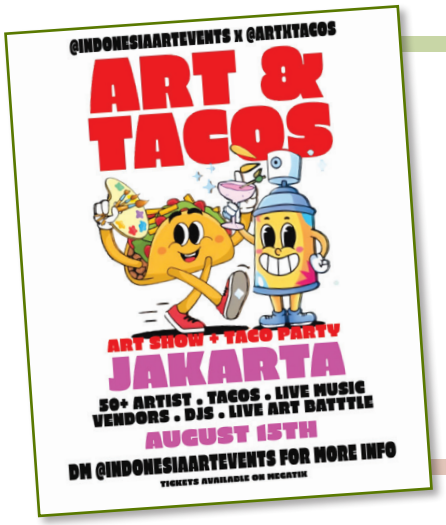
영화 음악으로 만나는《발레 사운드트랙 쇼》

Ballet performances to music from the movies, with live orchestra

2025년 8월 30일 | JAKARTA CONCERT HALL

오는 8월 30일 자카르타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발레 사운드트랙 쇼》는 한스 짐머, 제임스 호너, 루드윅 고란손의 영화 음악을 러시아 · 유럽 출신 세계적 발레 스타들과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함께 새롭게 해석하는 무대이다. 벨라루스 볼쇼이 극장과 헝가리 국립발레단 등 유럽 주요 발레단 출신의 솔리스트와 프리마 발레리나들이 참여해 '인터스텔라' 부터 '아바타', '글래디에이터' 에 이르기까지의 익숙한 선율을 네오클래식 발레로 재해석하며 관객을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이끈다.

이달의 PREVIEW



손글씨로 깨어나는 숨은 공간의 작은 변화
《꿈캘리 캘리그라피 전시회》

2025년 7월 ~ 8월 말 | JS MONBLANC - Q Market, JAKARTA

자카르타 위자야센터 Q Market JS MONBLANC에서 열리는 《꿈캘리 캘리그라피 전시회》에서는 일상의 말들을 그림처럼 담아낸 감성 캘리그라피 작품들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는 따뜻한 손글씨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Ballet Soundtrack Show

예술과 타코의 만남, 'ART N TACOS' 자카르타 상륙

2025년 8월 15일 | Artoon Network Jakarta

미국에서 시작된 독특한 '예술과 타코' 투어 파티 ART N TACOS가 오는 8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50명 이상의 예술가와 라이브 뮤직, DJ, 벤더 마켓과 라이브 아트배틀까지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준비된 축제는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패션과 예술, 음식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컬처 이벤트로 이색적인 경험을 찾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Dreamcalli Calligraphy Exhibition

제92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강좌

한 잔의 커피로 떠나는 미각 여행

블렌딩은 예술이고, 커핑은 발견입니다

글 | 이주실

7월 9일 오전, 한인니문화연원에서 열린 커피 강좌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전통악기와 와양 인형 등이 어우러진 공간은 처음 방문한 이에게도 이곳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오랜 시간 사랑해온 분들의 손길로 채워졌다는 인상을 준다.

커피는 30년 넘게 나의 일상에 함께해 온 존재다. 별다른 지식 없이도 매일 마시며 위로받던 커피에 대해, 이번 강의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니 더욱 애정이 깊어졌다.

최명식 강사는 '블렌딩은 예술이고, 커핑은 발견'이라는 주제로 원두의 생김새와 향, 맛을 함께 체험하며 쉽고 흥미롭게 커피의 세계를 설명해주었다. 인도네시아산 원두를 활용한 강의였기에 더 의미 있었다.

커피 품종과 원산지, 블렌딩과 싱글오리진, 프로세싱 방식 등 그동안 어렴풋이 알던 개념들을 명확히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시음한 아라비카 발리 킨타마니 원두의 풍미에 반해, 이후 직접 시장에서 구입해 마시는 즐거움까지 더해졌다.

짧은 시간 안에 더치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도 인상 깊었고 강사님의 반둥 커피농장 투어 소식도 반가웠다. 좋은 강좌를 기획해주신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정성껏 준비해주신 다과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자카르타를 알아가는 시작점에서 이런 경험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격려

감사의 몸짓을 주제로 식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왼편의 길게 솟은 잎은 먼 길을 내어준 선인들의 발자취를 상징하며 그에 응답하듯 오른편의 잎은 목례하는 자세로 표현했습니다. 존경과 감사로 고개를 숙이는 몸짓이자, 삶의 기반이 되어준 존재에 대한 겸허한 헌사입니다.
중앙에 닿을 듯 뻗은 푸른 잎은 세대를 잇는 악수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선 존재들이 손을 내밀고 맞잡는 모습은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는지를 상징합니다.

Florist 김수남
(한인문예총 한인꽃꽂이 협회 회장)

한인 문예총 꽃꽂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다가오는 10월, 문예총 전시회 참여를 목표로 꽃꽂이 무료 강습이 진행됩니다.

♦ 매주 화요일 | 코리아센터
♦ 수강료 무료 (꽃값은 본인 부담)
♦ 전시 참여 기회 제공
문의) 0812 8491 9977

재인도네시아 한인 청년회, 찌부부르 고아원 여름 봉사

청년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

지난 7월 19일 토요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는 자카르타 인근 찌부부르 고아원을 찾아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원아 80명과 교사 30명, 총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회 임원진과 회원 16명이 봉사자로 함께 했다. 이승수 회장을 중심으로 수석부회장 이동규, 부회장 손현목, 수석총무 이은주, 회계총무 전상일 등 임원단은 사전 준비부터 현장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다.

행사는 오전 8시, 한인 청년회원들이 고아원에 도착하며 시작됐다. 이승수 신임회장을 비롯한 청년회 임원단과 회원 16명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세팅과 준비를 마친 뒤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참여한 프로그램은 김밥과 김치 만들기 체험. 작은 손으로 김을 펴고 채소를 올리며 아이들은 낯선 재료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았다. 이어진 K-POP 댄스 배우기 시간에는 한국의 리듬과 에너지가 고아원 마당을 가득 채웠고, 미니 운동회에서는 웃음과 응원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부채 만들기 시간에는 아이들이 직접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한글을 배워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한국 문화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감각과 기억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풍성한 찬조품도 함께 전달되었다. 이승수 회장이 기부한 샌들 80켤레와 각종 스포츠 공들, 이동규 수석부회장의 의류 100점, 김문수 자문위원의 인형 80개, 최태립 고문의 1천만루피아(어린이 책자), 김종헌 한인회장의 음료수 200개 및 스낵 400개, 이정호 고문의 캔음료 300개, 한동관 예비회원의 선스틱 80개 등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며, 단지 하루의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여운을 남겼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와 정서, 따뜻한 마음이 교류된 진심 어린 시간이었다. 한인 청년들의 진심과 준비, 그리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어우러지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는 만 45세 이하의 한인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공동체다. 자원봉사 활동과 문화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사회에 한국 청년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왔으며, 한인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청년 리더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승수 회장은 '혼자는 힘들지만 여럿이면 쉬운 일'이라는 신념 아래, 기업의 후원과 청년들의 실행이 결합된 '고아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좋은 사람들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모이게 된다"고 말하며, 선배 고문들과 후배 청년들 간의 자연스러운 연대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임을 강조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절대 헤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마글랑이 있는 동북쪽 밤하늘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끓어 넘쳤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라덴 아유 렛나닝시와 자녀들, 그리고 센똣 쁘라위라디르죠까지 동원하고 드콕 장군까지 본진을 방문하는 등 전력을 다해 그를 마글랑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그곳에 헤어나오기 힘든 치명적인 덫이 설치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전하, 센똣 알리바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마글랑으로 따라 나서시면 안됩니다.>

그 사이 센똣의 일행 중 어떤 인물로부터 이렇게 자바어로 적힌 쪽지가 전달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센똣이 지휘하는 삐닐리 부대 안에서도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디포네고로를 지지하는 이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서 마글랑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디포네고로 왕자는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음날 그는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난 오늘 마글랑으로 들어갈 것이오. 나와 함께 출발할 호위대는 100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아놈 왕자의 지휘 아래 주둔지를 정리하고 부대를 산개시켜 전투에 대비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디포네고로 왕자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전하, 이건 함정이기 쉽습니다. 센똣 알리바사는 배신자입니다. 그의 약속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전투를 대비하라는 것이오. 내가 마글랑에서 회담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곳 머노레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오. 난 알리바사도 네덜란드도 믿지 않소. 난 오직 신을 믿을 뿐이오. 그분이 우릴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이제 부딪혀 볼 도리밖에 없지 않소?"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호위하겠습니다."

디포네고로의 아들 아놈 왕자가 호위대장을 자청했습니다. 회의장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마글랑에 들어가든 그렇지 않든, 또는 내가 죽든 살든, 네덜란드가 물러나지 않는 한 난 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오. 어차피 이 회담에 들어가 마지막 결정을 내릴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소. 하지만 이 전쟁을 이끌 사람들은 나 말고도 이 막사에 한 가득이나 있지 않소? 내가 죽어 백성들 마음 속에 살아난다면 난 하늘의 무수한 별들 같은 대군이 될 것이오."

라덴살레가 그린 디포네고로 왕자의 체포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 시점에서 이미 생과 사를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라마단 동안 금식의 규례를 잘 세우기 바라오."

그는 1830년 3월 18일 해가 중천에 뜰 즈음 말을 타고 머노레를 출발했습니다. 100명의 호위대가 앞 뒤를 둘러쌓고 네덜란드 군복을 입은 센똣의 호위대가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머노레 외곽에서 센똣의 삐닐리 부대 본대와 합류하여 행군을 계속해 그날 저녁 늦게서야 마글랑에 들어섰습니다. 네덜란드군은 요새 앞 멀찌기부터 임시 뻔도뽀(Pendopo)를 설치해 놓고 예를 갖추어 디포네고로 일행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거기엔 클레이런스 대령과 몇몇 끄라톤 왕자들도 나와 있었지만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들에게 딱히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글랑의 네덜란드 군영 내 쁘상그라한 (Pesanggrahan) 초대소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전하, 어찌 저희 같은 것들을 돌아보시려 이런 험지에 들어오십니까?"

렛나닝시는 남편의 모습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디포네고로 왕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아이들을 보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별도의 공식 행사나 회합도 없이 금식월의 마지막 며칠간을 쁘상그라한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록 네덜란드 측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가 샤왈월의 첫날 이둘피트리까지 지내는 동안 그와 동행한 다른 왕자들과 호위병들이 쁘상그라한의 안팎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샤왈월 둘째날인 1830년 3월 28일 아침 7시 디포네고로 왕자가 마글랑 중심부에 있는 꺼두(Kediu) 주지사 청사에 나타났습니다. 머노레에서부터 극구 동행해 온 세 아들 즉 아놈 왕자와 라덴 마스 죠나드(Raden Mas Jonad), 라덴 마스 라압(Raden Mas Raab)을 위시하여 마르타느가라 장군(Basah Martanegara)과 끼아이 바다루딘(Kyai Badarudin) 등이 디포네고로 왕자의 등 뒤로 도열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측에서는 드콕 장군을 비롯해 발크 주지사(Resident Valk), 루스트 중령(Letkol Roest), 비서관 드스튜어즈 소령(Major Ajudan De Stuers) 등과 함께 나타났고 룹스 대위(Kapten Roeps)가 회담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센똣과 클레이런스 대령은 이날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방에서는 반 레이우벤 중령(Letkol De Kock van Leeuwen)이 이끄는 일단의 네덜란드군 장교들이 디포네고로군 장교들을 상대했습니다. 오직 두페론 중령만이 드콕 장군의 비밀 지령에 따라 주지사 청사 바깥에 언제 떨어질지 모를 기습공격 명령에 대비해 은밀히 병력을 집결시켜 두고 있었죠.

이윽고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드콕 장군은 회담의 시작과 동시에 지난 5년간 지속된 전쟁에 대해 디포네고로 왕자를 일방적으로 성토했으므로 듣다 못한 디포네고로 왕자가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적의만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전쟁을 계속할 것이지 왜 이런 평화 회담을 하려는지 모르겠소. 장군의 말을 들으면 들을 수록 여길 오지 말고 차라리 바글렌으로 돌아가 전투를 준비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콕 장군도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그의 진영 한복판.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자바땅에 이슬람 지도자가 지배하는 단일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일이오. 단일 독립국가라니! 족자 술탄국이나 수라카르타 수난국도 동의하지 않을 게 틀림없소."

"드콕 장군, 그건 당신이 허락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오. 그것은 신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니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일이오!"

당초 우려했던 대로 회담은 금방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드콕 장군은 그날 모든 문제의 해결하려 했고 그 방법이란 당초의 안전보장 약속을 깨고 디포네고로 왕자와 그 일행을 억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술탄, 당신의 생각이 정히 그렇다면 당신을 여기서 내보내 드릴 수 없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오?"

"이대로 당신을 내보내면 자바땅엔 또다시 전쟁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오!"

"당신들의 압제가 계속되는 한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건 당연한 일 아니오? 그리고 당신은 군복을 입고 장군계급장을 달고 있으면서도 전쟁이 두렵단 말이오? 그건 비열한 배신자들이나 하는 소리요!"

디포네고로 왕자가 회담장을 박차고 일어서자 네덜란드군 병사들이 문을 막아섰고 왕자의 일행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드콕 장군이 뒤로 빠지면서 회의장에 있던 하급 장교들이 뽑아든 권총이 불을 뿜자 마르타느가라 장군이 디포네고로를 감싸며 총탄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회의장과 그 앞, 청사의 넓은 홀에서 근거리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멀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를 호위해 왔던 부대가 몰래 전개한 두페론 중령의 부대에게 포위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네덜란드군의 기습작전에 마글랑에 들어온 디포네고로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고 두페론 중령의 부대 중 중대규모 병력이 청사 안으로 뛰어들어 오면서 디포네고로 왕자와 그 일행들도 수에 밀려 모두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글랑의 꺼두 주지사 청사. 1830년 3월 20일 디포네고로 왕자가 사로잡힌 곳 (https://kerisnews.com)

이중 디포네고로 왕자 부분을 확대한 누군가의 수정작품

"계속 저항한다면 당신 수하들의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디포네고로 왕자는 자신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덫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겠다던 클레이런스 대령과 센뚯 알리바사는 어디 있소? 그들을 데려와 보시오!"

머리와 어깨의 부상으로 피를 철철 흘리던 아놈 왕자가 그렇게 소리치자 그의 머리에 총을 겨군 네덜란드군 장교는 웃음을 흘리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우린 모르는 일이고 그들은 지금 마글랑에 없소이다."

전형적인 발뺌이었죠. 디포네고로 왕자는 네덜란드 측이 한 약속을 조금이나마 신뢰하려 했던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교들 뒤로 몸을 피했던 드콕 장군이 다시 앞으로 나와 무장해제 당한 디포네고로 일행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지난 5년간 염원했던 바, 디포네고로를 마침내 생포했다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소. 술탄, 지금이라도 항복의 뜻을 밝히고 전국의 수하들에게 무장해제를 명령한다면 그대의 형량도 참작될 것이고 그대의 수하들도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될 것이오."

바로 그 순간에도 마글랑 외곽에서 산개하고 있던 디포네고로군의 주력은 드콕 장군이 동인도 전역에서 끌어 모든 부대들의 협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드콕 장군이 오래동안 준비해 온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요새들과 통신로에서 튀어나온 적들의 맹공을 받아 밀리기 시작했고 남은 지휘관들은 마글랑에 들어간 디포네고로 왕자 일행의 운명이 어떤 파국을 맞이한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깐젱 술탄 압둘하미드(Kanjeng Sultan Ngabdulkhamid)! 나는 자바땅 이슬람의 수호자로서 신에게 불충한 자들을 처분할 의무를 다할 것이다!"

손발을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디포네고로 왕자는 드콕 장군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명성을 떨쳤던 동인도의 귀족 출신 화가 라덴 살레(Radeh Saleh)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디포네고로의 체포장면을 전해 듣고 애통해 하며 이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 디포네고로 왕자는 많은 추종자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강제로 끌려가는 순교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격동의 시대, 두 개의 독립을 좇았던 조선인들의 흔적

조연숙 |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이제 제가 고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질문은 1940년대 중반, 머나먼 인도네시아 땅에서 복잡한 운명과 마주했던 한 조선인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광복절(8월 15일)과 이틀 뒤인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8월 17일)은 우리를 태평양전쟁 종전과 함께 인도네시아 독립 열망이 격렬하게 타올랐던 혼란스러운 시대로 이끕니다. 당시 이국땅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격동의 운명을 헤쳐 나갔던 조선인 군속(軍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조국의 독립과 삶의 터전이 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두 개의 독립 투쟁'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패망과 동시에 연합군의 전범 색출이라는 위협,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독립 투쟁이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내린 선택은 과연 온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범 처벌을 피하거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강요와 맞물린 결과였을까요? 이러한 이상과 생존이라는 복잡한 동기가 작용한 그들의 고뇌에 찬 선택들은 오늘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굳건한 우호 관계를 맺는 소중한 토대가 되었으며, 양국 연대의 중요한 역사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일본군 포로감시원 외에도 동맹통신사 파견원, 항만 노동자, 농장 직원, 간호사, 조선인 위안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으며,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크게 네덜란드나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그룹과, 과거 친일 행적이 있었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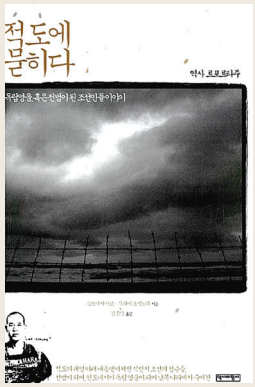
1. 격동의 시대, 조선인들의 복합적인 선택

1) 전범 색출의 그림자 속에서: 생존과 속죄를 위한 고뇌

일본의 패망은 조선인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함께 전범 색출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포로감시원 출신 조선인 군속들은 연합군 포로를 가혹하게 다룬 전력이 있을 경우 전범으로 지목될 위협에 놓였습니다.

허영(許泳): 친일 행적을 보였던 허영은 종전 후 친일 행적에 대한 깊은 자책감으로 조국으로의 귀국을 포기합니다. 전범 색출을 피해 처자식이 기다리는 일본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국제 미아' 신세가 된 그는 총칼 대신 연극과 영화라는 예술적 무기를 들고 수카르노 망명 정부에 합류하여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뛰어듭니다. 수카르노 망명 정부의 공보 담당관으로서 연극과 영화('민족의 혼', '봉화 불' 등)를 통해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으며, 인도네시아 연극영화 산업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한을 품고 43세의 젊은 나이에 이국땅에 묻힙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양칠성(梁七星): 포로감시원 시절 악명이 높았던 양칠성은 전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국선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독립 부대인 국민방위군(TKR) 산하 '빵에란 빠빡 부대'에 합류하여 네덜란드에 맞서 싸우는 독립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이제 제가 고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절망적인 질문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희망을 찾기 어려웠을 그의 불안과 고독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빵에란 빠빡 부대는 일본군 잔류자 아오키 상사가 이끌고 온 조선인 군속 4~5명을 포함하여 총 30여 명의 일본군과 현지인 부대원 수백 명으로 구성된 혼성 부대였습니다. 결국 양칠성, 국재만, 정수호는 1949년 네덜란드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사형당했으며, 이들의 희생은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양칠성은 사후 46년만인 1995년 고국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적 회복과 한글 묘비 교체식이 거행되며 한국인으로서 재조명되었습니다. 양칠성, 국재만, 정수호는 서부자바주 가룻군에 있는 국가영웅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2) 또 다른 선택: 친네덜란드–친중국 세력과의 협력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네덜란드나 중국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인들의 생존과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장윤원(張閏遠)은 조선인 보호에 헌신한 이국땅의 선구자입니다. 1920년 자바섬으로 이주하여 네덜란드 총독부 고위 관리로 일하며 현지 화교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장윤원은 3.1 독립운동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에 체포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구타를 겪었음에도, 종전 후 자신의 귀국 계획을 미루고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구명 운동과 민간인 귀환 문제 해결에 헌신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허영과 함께 '재자바조선인민회' 설립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문 후유증과 고령으로 1947년 이국땅에서 한 맺힌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자이자 사업가로 성공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김만수(金萬壽)와 **이병용(李炳鎔)**은 인간적인 연대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조선인 군속 김만수와 이병용은 일본군 감시원으로서 연합군 포로, 특히 네덜란드인 포로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인간적인 배려는 전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표창과 고무 수출권 등 사업 이권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6.25 전쟁 등으로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김만수는 이후 한인사회의 맏형으로서 교민 사회 형성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병용 역시 인도네시아에 남아 활동했습니다.

이활(李活, 이억관)은 김구 주석의 승인을 받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중국어에 능통했던 이활은 자카르타 화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그의 처가 또한 중국 국민당 산하 비밀결사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구 주석의 승인을 받아 '고려독립청년당'이라는 비밀결사 조직의 총령(總領)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가 김구 주석에게 받은 태극기는 '재자바조선인민회' 건물 앞에 휘날리며 조선인들의 구심점이자 조국 독립의 염원을 상징했습니다.

2. 두 개의 독립 투쟁, 하나의 비극

이 시기 인도네시아 내 조선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직접적인 투쟁과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은 때로는 얽히고설키며 비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1) 고려독립청년당의 처절한 반일 의거: 암바라와와 수미레 마루호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고 조선인 군속들의 불만이 쌓여가던 1944년, 자바섬에서 비밀결사 조직인 '고려독립청년당'이 탄생합니다. 1944년 12월 29일, 이활을 비롯한 10명의 조선인 군속들은 혈서(血書)를 쓰며 조국 독립을 맹세합니다.

암바라와 의거(제1차 거사)는 비극적인 자결로 끝납니다. 1945년 1월 4일,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인 손양섭, 민영학, 노병한은 싱가포르 전출 명령에 대한 불만과 조국 독립의 염원을 안고 암바라와에서 일본군에 대한 무력 봉기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일본인 관사를 습격하고 일본군 위생병을 살해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격전 끝에 민영학은 일본군에게 총상을 입고 옥수수밭에서 "그냥 가 달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총구를 가슴에 대고 자결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손양섭과 노병한 역시 다음 날

위생창고에서 자결하며 “나는 할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의거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조직에 바탕을 둔 해외 독립운동의 신호탄으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수미레 마루호 탈취 기도(제2차 거사)도 결국은 좌절로 결말을 맺습니다. 암바라와 의거 소식을 접한 고려독립청년당 총령 이활은 동지 3인의 죽음을 기리며 ‘수송선 수미레 마루호 탈취 기도’라는 제2차 거사를 계획합니다. 이들은 영국군 및 네덜란드군 포로들과 연대하여 수송선을 탈취하려 했으나, 계획이 일본 헌병대의 정보망에 걸려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활을 포함한 주요 당원 6명이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일본의 패전이 임박했기에 예상외로 가벼운 형량(징역 7~10년)을 선고받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수감되어 있던 혈맹 당원들은 종전 10일 후 석방되었으며, 1946년 1월 6일, 재자바조선인민회 주최로 암바라와 의거에서 산화한 동지 3인을 위한 제1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날짜로 ‘고려독립청년당’은 정식으로 해산되며, 당원들은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 조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박창원과 같이 귀국 후 한국 사회의 모습에 실망하여 유공자 포상을 거부하고 국토에 묻히는 것조차 거부한 이도 있었습니다. 최후의 생존자인 이상문의 끈질긴 노력으로 암바라와 의거 의사 3인은 2008년, 고려독립청년당 혈맹 당원 9명은 2011년 서훈을 받으며 뒤늦게나마 조국으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 재자바조선인민회: 동포 보호의 구심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의 안전한 귀환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자바조선인민회’가 설립됩니다. 허영은 과거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제16군 사령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1945년 9월 1일 자카르타에 조선인 최초의 자치단체인 재자바조선인민회를 탄생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민회는 일본군과의 협상을 통해 약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물자와 군표를 확보하여 귀국을 기다리는 동포들의 생계를 지원했으며, 조선어 교실을 운영하고 『조선인 민보』를 발행하는 등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포들의 귀환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비록 허영과 양칠성처럼 인민회를 떠나 다른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자바조선인민회는 격동의 시기에 조선인들의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 비극적 선택의 오늘날 의미: 그들의 숭고한 유산

인도네시아라는 머나먼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과 새로운 삶의 터전을 위해 힘썼던 조선인 군속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친일 행적에 대한 자책감으로 ‘국제 미아’가 되었던 허영의 고뇌, 전범 색출의 위협 속에서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양칠성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이국땅에서 처절하게 반일 무력 의거를 펼치다 산화하거나 좌절했던 고려독립청년당원들의 희생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 격동의 시대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고뇌와 선택, 그리고 희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비극적이었던 삶과 선택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굳건한 우호 관계를 맺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의 중요한 역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그림자마저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뇌를 공감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주석]

* 군속(軍屬): 군대에 소속되어 군의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통역, 노무,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 김문환『적도에 뿌리 내린 한국인의 혼』(2013) / 공저『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2020)/ 한인뉴스 칼럼
* 우스미 아이코『적도에 묻히다 - 독립 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해답을 찾다, AI… 서울서 활용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월 15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열려 왔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 · 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 아세안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기반 솔루션 AI" 였다. (영문: AI-Powered solutions for smarter and safer mobility in ASEAN)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환영사, 미얀마 교통통신부 윈 칸트(Win Khant) 수석대표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 장인권 카이스트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장이 '스마트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AI 활용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포럼 공식 세션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아세안 교통 협력의 중장기 비전이 공유됐다. 한국은 현재 수립 중인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수립 일정을 안내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세션은 육상, 항공, 해상 교통 분야의 AI 활용 방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측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해상 교통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어 양측 교통 협력 논의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AI 전략이 공유됨에 따라, 향후 ODA 및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교통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호에 이어

생활한의학 II

– 약물 오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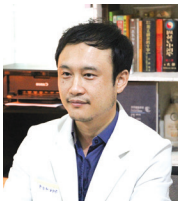
약물 오용: 고열을 앓는 5세 여아에게 감기약과 해열제를 먹였는데 차도가 없자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아 보니 장내 세균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비약이라고 부르는 약들은 경증이나 초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의약품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과신하여 잘못된 처방이, 자칫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약물 남용: 인도네시아에는 자무라 부르는 산 약초가 있습니다. 자무는 약성이 강하여 음식 재료로 쓰기보다는 한약재 같이 약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를 먹었더니 무슨 병이 나았다더라.' '어떤 걸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요법은 앞으로도 발전하고 계승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체계를 갖추어 용법과 용량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나 검증 없이 남의 말만 믿고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자무는 화학약품보다 독성이 약해, 복용을 끊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통풍에 좋다더라, 정력에 좋다더라는 얘기만 듣고 복용했다가 부작용을 겪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의심이 된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1. 성분표 불분명
2. 허가 (BPOM) 번호가 없음
3. 약효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남
4. 너무 비싸거나 혹은 싼 가격왜냐하면 화학물질이나 자극성 높은 첨가제 또는 불순물 포함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오랫동안 통풍을 앓은 신 사장님

신 사장님은 오랫동안 통풍을 앓아 오셨다. 피로하거나 음식 관리가 안 되면 통풍이 재발되어 여간 고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통풍에 좋다는 약을 소개받았다. 가격도 싸고 천연 성분이라는 말에 혹했다. 효과가 있다는 말에, 정식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복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효과도 좋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아 만족도가 높았다.



서상영 | 미르한의원 원장

그렇게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했고 몇 달간 잘 지냈다. 문제는 해를 넘기고 예전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용량을 늘려갔다. 어느 순간 피부색이 변하고 관절에 변형도 조금씩 생겨났다. 약을 늘리면 진통 효과는 있었지만,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컨디션도 나빠지고,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덜컥 겁이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진 결과 위장과 신장의 손상과 더불어 통풍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내가 복용한 약에는 페닐부타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약물이라고 했다. 페닐부타존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 주로 염증 완화와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데, 관절염과 통풍,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 사용되었으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증증으로 발전해 버린 통풍의 흔적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후회가 밀려온다."

사례 2) 발기부전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한 전 사장님

전 사장님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온라인과 비공식 경로를 통해 구매하여 장기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성분이 불분명하여 찝찝한 기분이 들었고,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그 효능에 푹 빠져 끊기가 힘들었다. 커피, 사탕, 알약, 가루 형태로 복용이 간편하고 속효를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지만, 갈수록 복용량을 늘려야 했다는 것과 현재보다 더 강한 약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건강한 길을 놔두고 빠른 길만 고집하다 몸을 망가뜨렸구나."

약물 의존

사례) 불면증으로 수면제 복용을 시작한 40대 직장인 박 씨

40대 직장인 박 씨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복용을 시작했다. 처음엔 반 알씩 먹었고, 효과도 좋았다. 하지만 어느새 용량은 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로감이 사라지기는커녕 낮에 멍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가 찾아왔다. 회사 업무에서 실수를 반복하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다. 약 없이도 잠을 자던 과거가 그립다는 얘기를 동료들에게 남기고, 박 씨는 떠났다.

"약에 의존하는 동안 내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구나."

약물 중독

사례 1) 진통제 중독으로 간 건강을 잃은 30대 여성

생리통과 두통이 심했던 그녀는 진통제를 일상처럼 복용했다. 병원을 찾지 않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더 자주, 더 많이 먹었다. 주위에서 혈색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살도 빠지고 체력도 급격히 나빠졌다는 걸 느꼈다. 엄마와 함께 병원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약물성 간염' 진단을 받은 것이다. 간 수치가 나빠져 정상적인 간 기능 회복을 기대하는 건 어렵겠다는 소견으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몸이 되었다.

"그땐 참고 넘기기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약보다 제 몸의 신호를 먼저 살필 걸 그랬어요."

사례 2) 체중 감량제에 중독된 20대 대학생

SNS에서 본 '다이어트 약' 후기에서 읽은 몇 킬로가 빠졌다는 말에 혹해서 시작했다. 초기엔 식욕이 억제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지만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등 이상 증상이 갈수록 심해졌다. 게다가 살은 다시 찌고, 몸무게에 집착하는 강박증까지 생겼다. 일상생활은 물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스로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빨리 효과를 보려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간혹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여 병원이나 의사를 불신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문외한인 사람이 단편적인 정보를 듣고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둔 뒤, 주변에 투자를 권하며 자신에게 투자를 맡기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금방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더 과감히 투자해 손실을 보지만 단지 운이 나빴다 생각하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금전은 다시 모아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옛말에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 했습니다. 충분히 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까요?

사례 3) 한약도 남용하면 독이 됩니다 – 고삼탕 중독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들은 50대 남성. 오다가다 들은 얘기대로 고삼탕을 달여 계속 복용했다. 한약이라 안심했지만, 약재가 체질에 맞지 않아 위장이 상해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다가 결국 위내시경에서 궤양 진단을 받았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나한테 좋은 건 아니더군요. 한약도 체질 맞춰서 전문가 손에 맡겼어야 했는데....."

다음은 사상체질의 창시자 이제마 선생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제마 선생에게 감기를 앓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인삼이 들어간 보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환자는 씻은 듯이 나아 만족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감기 환자가 찾아와, 효과를 본 인삼 처방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약을 복용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깊은 충격과 통찰

이 사건은 이제마 선생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깊은 회의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증상이었고 같은 약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랐는가?"

이후 더욱 깊이 사람의 체질과 반응을 관찰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긴 체격과 장부의 강약, 감정 반응, 성격 기질, 땀이나 소화의 특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체질'이 다르며,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맞는 처방을 써야 하는 것이구나." 이 경험은 훗날 체계화된 사상의학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제마 선생님은 인간을 네 가지 체질인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고, 체질마다 잘 맞는 약과 맞지 않는 약, 체질에 따라 선호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등을 정리했습니다.

약물 부작용

사례 1) 일반 진통제의 위장 장애 및 부작용

소염진통제(NSAIDs)는 통증과 염증을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손 떨림이나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례 2) 불법 약물

시중에 정식 허가를 받고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는 사례로,팬데믹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BPOM RI)는 에틸렌글리콜(EG)과 디에틸렌글리콜(DEG) 오염 물질을 함유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시럽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유통 허가를 취소한 5개 제약회사의 시럽제 약품은 총 73종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약물의 생산, 공급, 유통을 맡고 있는 범죄 조직의 공개수사를 통해, SNS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온오프라인 시장과 SNS로 판매되는 불법 약물 및 가짜 어린이 보조제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비약이나 민간요법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 증상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약물을 끊고,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거나,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과도한 믿음과 기대,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내 몸에 맞는 처방은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약은 도구일 뿐, 내 몸을 살피고 아끼는 주체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약을 선택하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韓方

골프의 시작은 왜 7번 아이언일까요?

손상현 | '자카르타의 아침' 블로거

Chat GPT에게 물어봤다. 7번 아이언은 공이 잘 뜨고, 스윙 연습하기 좋으며, 실전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초보자용으로 가장 적합한 클럽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PGA/LPGA 코치들도 7번 아이언을 기본 연습 클럽으로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스윙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익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윙의 템포와 리듬을 익히기에 중간 길이의 아이언이 유리하다는 이론적 해석이 있다. 최근에는 3번, 4번 아이언을 사용하는 골퍼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7번 아이언은 3번 아이언과 피칭 웨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의 스윙을 비교한 결과 7번 아이언 사용 시 체중 중심의 이동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전세계 대부분의 입문용 골프 레슨 프로그램(책, 유튜브, 아카데미)에서도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7번 아이언으로 골프 연습을 시작하지만 유아, 아동 또는 여성,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9번 아이언이나 피칭 웨지로 시작하기도 한다. 골프를 가르치는 코치들의 성향에 따라 스윙 자세와 퍼팅 또는 하이브리드와 숏아이언을 먼저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 아이언의 역사

1930년대 골프 대회에서는 20~30개 이상의 클럽을 휴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한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클럽으로 정확한 비거리의 샷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선수의 경제력이 대회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었고, 캐디들은 약 15kg 이상의 무거운 캐디백을 들고 다녀야 했다.

이런 이유로 골프 클럽을 14개로 제한하는 일이 발생했다. 1935년 세계적으로 골프규칙을 제정하는 영국의 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가 클럽 사용 개수 제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1938년에 한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골프클럽의 개수를 14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클럽 사용 개수의 제한은 로프트에 대해 고민으로 이어졌고, 15세기 대장간에서 수공으로 만들었던 아이언 클럽에 번호, 그루브, 로프트각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1~9번 아이언, 피칭웨지(PW), 샌드웨지(SW) 등의 구성으로 로프트각이 정형화되면서 마침내 현재와 같은 로프트 체계가 만들어졌다. 골프 클럽을 만드는 기술이 향상되던 이 시기에 MacGregor, Wilson 등의 골프 클럽 제조회사들이 등장했다.

• 아이언의 기준이 된 7번

로리 맥길로이의 7번 아이언

현대적 개념의 아이언을 설계할 때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7번 아이언의 데이터 밸런스가 가장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의 **로프트, 라이각, 길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아이언 클럽을 만들었다. 아이언의 로프트각, 라이각, 길이는 비거리, 방향성, 스윙 스피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클럽 샤프트가 길수록 헤드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비거리도 증가한다.

로프트각은 7번 아이언 34~35° 를 기준으로 ±3~4° 차이를 두었다. 로프트각 4° 차이는 10yd(로프트각 차이_8yd, 샤프트 길이 차이_2yd)의 비거리 차이를 만든다. 클럽 길이는 37인치 전후를 기준으로 ±0.5인치씩 차이를 두었고, 라이각은 62° 를 기준으로 나머지 아이언의 각도를 설정했다. 아이언 클럽은 정확한 비거리가 중요한데 로프트각은 비거리, 탄도, 스핀양 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현재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가장 클래식한 모델의 7번 아이언 로프트각은 34~35° 이다. 하지만 1950년대까지는 37~38° 였으며, 클럽이 표준화되면서 35~36° 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는 샷의 정확도, 컨트롤, 클럽간 거리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골프 브랜드간의 클럽 비거리 경쟁이 시작되면서 7번 아이언 로프트가 점점 낮아져 로프트각이 28~32° 로 내려갔다. 이로 인해 현재 7번 아이언은 과거의 5~6번 아이언에 해당하는 비거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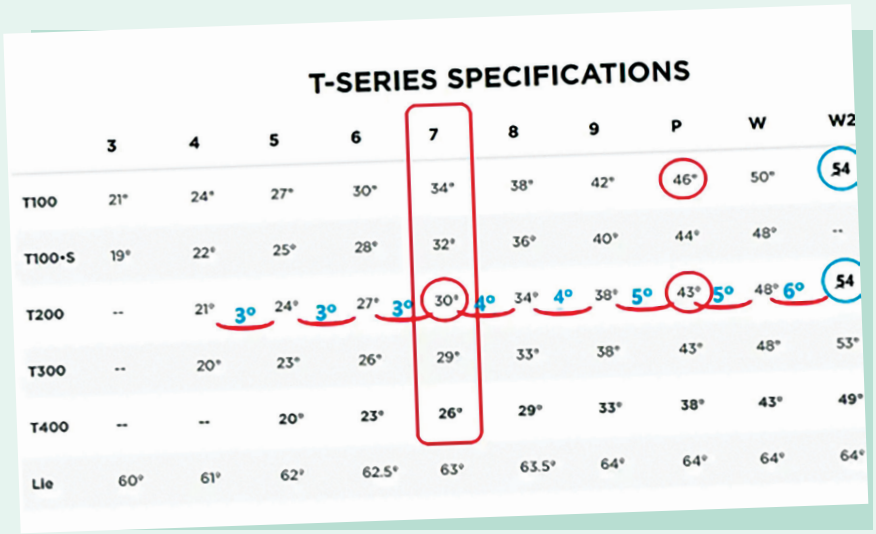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Titleist T-series 스펙을 보면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각이 26~34° 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골프 브랜드에서 제품의 주요 소비자들의 수준에 맞도록 아이언 로프트각에 차이를 두어 출시했다.

T100모델은 김주형 선수를 비롯해 많은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모델인데,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각은 34~35° 이다. 빠른 스윙 스피드로 비거리를 충분히 내면서 딱딱하고 빠른 그린에서 런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사실 아마추어 골퍼들이

비거리에 더 관심이 많다. 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프용품 브랜드마다 아이언 로프트각을 경쟁적으로 세워서 출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충분한 연습량과 기량은 갖추지는 못했지만 동반자에게 지지 않은 비거리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PRGR 에그 PC 모델의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각은 25° 이며, Bridgestone JGR 7 Iron과 Titleist T400은 26° 이다. 현재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각은 30° 전후이다. 1983년에 출시되어 가장 많이 판매된 Ping Eye 2의 7번 아이언 로프트각은 36° 였다.

• 7번 아이언 로프트각 선택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투어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각은 여전히 34~35° 를 유지하고 있다. 탱크 최경주 선수가 PGA에 진출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롱아이언(4~5번)으로 높은 탄도의 샷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점' 이라고 했었다. 그는 전장이 긴 코스와 빠르고 딱딱한 그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T-SERIES SPECIFICATIONS

	3	4	5	6	7	8	9	P	W	W2
T100	21°	24°	27°	30°	34°	38°	42°	46°	50°	54
T100·S	19°	22°	25°	28°	32°	36°	40°	44°	48°	--
T200	--	21°	24°	27°	30°	34°	38°	43°	48°	54
T300	--	20°	23°	26°	29°	33°	38°	43°	48°	53°
T400	--	--	20°	23°	26°	29°	33°	38°	43°	49°
Lie	60°	61°	62°	62.5°	63°	63.5°	64°	64°	64°	64°

이제 골프를 시작한 초급자이거나 비거리가 부족한 골퍼라면 30° 전후의 로프트 각이 세워진 클럽을 선택해보자. 비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운이 좋아 잘 맞으면 동반자들 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다. 페어웨이에서 항상 먼저 세컨드 샷을 해야 하는 억울한 기분도 날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매 홀 버디를 노려야 하는 골프를 직업으로 가진 프로선수가 아니다. 다만 주말 오후와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을 즐기고 싶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자들에 비해서 비거리가 충분히 앞서 있고, 버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카로운 아이언 샷으로 그린을 공략하고 싶다면 투어 프로, 싱글 골퍼들처럼 34~35° 의 로프트각을 추천한다. 동반자들은 당신의 집중력에 경의를 표하며, 멋진 샷에 대한 탄성과 칭찬, 캐디들과 함께 놀라워하는 표정을 환희에 찬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자카르타 주정부,
골프 제외한 상업 스포츠에 오락세 부과

자카르타 주정부가 상업 스포츠 활동에 대해 오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0일 자로 발령된 자카르타 지방수입청(Bapenda)의 총괄훈령 제257호에 따라, 상업시설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스포츠 서비스에는 10%의 오락세(Entertainment Tax) 가 즉시 적용됐다.

과세 대상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요가, 농구, 필라테스, 크로스핏, 패들(padel) 테니스 등 총 21개 종목이 포함된다. 오락세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직접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일부 업계는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목할 점은 골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골프는 이미 11%의 부가가치세(PPN)를 납부하고 있어, 오락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골프는 고급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법적 정합성을 고려해 이번 오락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골프가 주로 고소득층의 레저 스포츠라는 점을 들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으나, 시 당국은 "세금 구조상 이미 골프는 타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도시 재정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방수입청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 및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주정부는 향후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을 띤 기타 체육·여가 서비스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주정부는 "오락세 적용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성격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락세 도입을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 중 하나로 평가하며, 그 영향력이 자카르타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본 기사는 자카르타 주정부 발표「자카르타 지방수입청 고시 제257호」 및 Jakarta Daily (2025.7.9) 등 현지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한인뉴스 편집국

“의료 전문가 초청 특강”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초청 진로 및 건강 특강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학교장 이선아, 이하 JIKS)는 2025년 7월 17일(목) ~ 7월 18일(금)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초청해 학생, 학부모 및 현지 직원을 아우르는 JIKS 교육가족 진로 및 건강 특강을 진행했다.

JIKS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혈관이 깨끗해지는 식습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주제의 특별 강연이 7월 17일(목) 나래관 1층 컴퓨터실에서 있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방법,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명상 등을 소개하여 JIKS 교육가족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JIKS 현지 직원들을 위해 7월 18일(금) 다목적실에서도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Dewi(JIKS 인도네시아어 담당) 교사의 통역을 통해 인니어로 상세히 전달되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슬기로운 의사, 간호사 생활”이라는 주제로 JIKS 중등 과정 학생대상 최석재 전문의의 진로특강이 7월 18일(금) 나래홀에서 있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며, 의료계 직업의 의미와 보람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법과 시간 관리 팁을 공유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강 일정과 별개로 진로 고민이 있는 학생과 1:1 진로 상담도 이루어졌는데, 의료, 보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진로 관련해 조언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JIKS는 이번 의료전문가 초청 행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베지닥터 상임이사, 비영리 봉사단체 행복한 의사 Happy Doctor 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TvN 유퀴즈온더블록, 슬기로운 의사생활 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응급실에 아는 의사가 생겼다」, 「우리 아이 응급주치의」 등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행복 에세이

놀라운 자연의 힘

김준규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아침에 눈 뜨면 밝게 미소 짓는 햇살이 일상의 시작을 알려준다. 세월의 언덕에서 새 옷을 갈아입으며,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은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도 자연을 담는 절기는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온다. 평화로운 햇살,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빗방울, 공기를 순환하는 바람의 율동,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행성의 근본은 어디에서 왔고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고마운 지구의 모습이 항상 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고 장마와 태풍이 일어나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 쑥대밭으로 만든다. 태곳적부터 있어 왔던 무서운 화산과 지진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생명체는 늘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존재는 놀랍도록 조밀하게 짜인 시간에 맞추어 스스로 자전하는가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공전하며 운동을 지속한다. 정교하게 짜인 자전과 공전의 규칙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비행기의 속도보다 더 빠르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1년) 돌기 위해서 달리는 속도는 총알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 이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에너지와 기계처럼 정교하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중력이 존재하는 물리학에서 물체의 운동이라 함은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하고 일정한 비율을 형성할 수도 없으며 에너지의 공급 없이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회전하는 물체는 원심력에 의하여 밖으로 이탈하려는 극심한 팽창의 힘이 발생하고 방향이 매우 불규칙하여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기 쉽다. 하여 기계적 메커니즘의 회전 운동은 방종을 제어할 수 있는 축이 있고 운동을 전달하는 기어가 있으며 자세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틀이 조성된다.

현대 과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이에 속한다. 이름하여 임의적인 메커니즘 운동이란 인간의 두뇌가 오랜 세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과학의 산물이다. 이성적 가치와 과학을 해석하는 학문에서는 인류의 탄생과 문명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론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은 과학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같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허공중에 둥둥 떠다니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지구와 태양과 달의 관계는 과학인가?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신의 영역인가? 찰스 다윈은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을 변형, 발전시킨다는 진화론을 발표했다가 유신론자들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유신론자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이 관장하며 끌내는 신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신을 믿으면 그 축복으로 행복해지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아프지도 않으며, 기도의 힘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이 아닌 천당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산다고 가르친다.

신에 대한 믿음의 기준은 개인의 맹신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하며 한계를 구분 짓기 어렵다. 신을 믿는 사람도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성직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엄벌에 처해진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인간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이 붕괴된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 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는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였다. 니체의 주장이 허무주의나 종교적 배척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지나친 기복신앙과 종교적 타락을 경계하는 철학적 선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의 나약한 심성을 파고드는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선악의 이중적 심성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난다고 한다. 종교를 통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사악한 감정을 자재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종교적 역할은 나름 지대하다 할 것이다.

어떻든 인간은 불가사의한 우주의 조화 속에서 불안과 희열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는 목적과 이상이 다르더라도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공동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구조와 다양한 환경의 특성상 잘살고 못사는 자, 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엄연한 것은 다양한 사회구조와 환경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순종의 모습이야말로 자연이 보내는 엄중한 명령이 아닐까!

2.7억 인구의 식탁 위에 한국을 올리다

인도네시아의 외식 생태계를 개척한 리더십

강진호 「청담가든」 대표
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KRAI) 회장

인구 2억 7,550만 명이 거주하는 무한한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붉은 적도의 땅에서 당당히 자리잡은 젊은 사업가들의 성공 사례가 미래의 CEO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리더 칼럼을 기획했다.

이번 호의 주인공은 자카르타의 중심지, 스나얀 · 세노파티 지역에서 정통 한식당 「청담가든」 을 운영하며, 동시에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Korean Restaurant Association of Indonesia, KRAI)의 4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진호 대표다.

강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제10회 '외식인의 날' 행사에서 공식 회장으로 취임하며,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한 사업의 효율화와 정통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플랫폼이 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외식업계의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마케팅과 브랜딩, 한식 셰프 양성 등 다방면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70여 개 외식 회원사가 소속된 KRAI는 식당 운영자뿐 아니라 식자재 · 유통 ·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외식 파트너들이 모인 협의체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및 농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강진호 회장은 '한식 오너셰프' 라는 본업과 '외식업 단체 리더' 라는 공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한식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만난 그는 단지 요리를 넘어 브랜드 · 문화 · 협력의 중심에서 외식 산업을 다시 쓰는 사람이었다.

Q. 「청담가든」을 단순한 외식 공간이 아닌 '한식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일관된 운영 철학과 실행력' 입니다. 우리는 '한식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전달한다' 는 브랜드 미션을 중심에 두고, 메뉴 개발, 매장 디자인, 고객 응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까지 전 부문에서 통일된 기준과 방향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브랜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직원 교육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정기적이고 끈질긴 내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매주 빠짐없이 매니저 및 셰프들과의 총괄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주의 계획을 공유하고,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하며 다음 주의 운영 전략을 세웁니다. 단 한 번도 이 미팅을 미룬 적이 없으며, 이 루틴은 매니저들에게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각 매니저에게 역할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부여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메뉴 리뉴얼 역시 단순히 트렌드를 좇기보다 「청담가든」 만의 맛의 정체성과 고객 경험을

중심에 둔 전략적 접근을 해왔습니다. 고객 피드백은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해 서비스와 상품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 변화와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곧 시스템이다' 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철학과 감성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청담가든」의 성장은 단지 좋은 음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치밀한 실행력과 조직 운영의 내공이 함께 이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선호하는 맛과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 사이에는 어떤 취향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간극을 조율하며 얻은 통찰이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함께 들려주세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K-푸드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유튜브 먹방 콘텐츠의 영향으로, 불고기와 잡채를 넘어 간장게장, 백반, 닭볶음탕까지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 현지 젊은 층에게 친숙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식당 창업자들에게 큰 기회인 동시에,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맵고 달다' 는 인식만으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매운맛은 고추를 기름에 튀겨 향신료와 어우러진 자극적인 풍미가 특징이며, 단맛도 정제 설탕보다 팜슈가나 코코넛 기반의 자연스러운 맛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미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지 고객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수해온 원칙은 "현지화를 하되, 한식의 본질은 지킨다" 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이며, 문화 교류의 시작점입니다. 한식이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공감과 배려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

Q4.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주방에 서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장을 아는 리더'로서 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와 그 안에 담긴 신념이 궁금합니다.

한식의 진정한 맛은 결국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종이에 레시피를 적고, 직원에게 요리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손님의 표정과 반응은 오직 주방 안에서 직접 느껴야만 보입니다.

진정한 리더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불 앞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과 호흡하며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칼을 쥐고 요리를 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팀의 분위기와 음식의 방향, 그리고 청담가든이 지켜야 할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한식은 단순히 정통의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리는 레시피가 아닌 사람을 보고, 맛은 주방이 아닌 고객의 미소 속에서 완성됩니다.

Q. 팬데믹 이후 자카르타에는 한식당 개업이 이어지는 한편, 문을 닫는 매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청담가든은 오히려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고 인테리어도 새롭게 단장하셨는데요. 많은 변화 속에서도 더 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팬데믹 이후 자카르타 외식 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식당이 급속도로 늘어난 만큼, 문을 닫는 곳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뻔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기본'에 집중했습니다.

저에게도 팬데믹은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청담가든의 맛과 서비스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맛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매장의 분위기까지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인테리어 리뉴얼이 아니라, 청담가든이라는 브랜드의 고객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본에 집중한 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낸 힘이었고,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Q. 2022년 'Archipelago Chef Table with Korean Ambassador Park Tae-Sung' 행사에서 현지 호텔 셰프들과 외부 초청 한식 셰프들과 함께 한식을 선보이셨습니다. 이 경험이 셰프로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한식 셰프의 글로벌 역할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2022년 당시, 한식 관련 행사에 참석해 현지 호텔 셰프들의 조리 과정과 맛을 직접 평가해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현지 셰프들의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 셰프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인니 외식업 협의회 내에 '조리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한식 행사에서 해당 분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지 셰프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한식의 맛과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Q. KRAI 회장으로 인도네시아 외식산업에서 '한식과 한식당'의 입지를 넓혀가는 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현지 기관 및 협력 네트워크와의 연결 방식도 함께 들려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한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식 고유의 깊이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메뉴 개발과 구성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현지 입맛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을 지키되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핵심이라 믿습니다.

또한 한식당 운영자들의 조리 교육과 위생 교육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기반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식의 품질은 곧 신뢰이며, 신뢰는 문화로 확산되는 첫 걸음입니다.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저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직접 한식을 맛보고,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음식 너머의 경험과 교감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셰프 및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식을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에서 '일상 속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요리하고 소개하며, 한식의 진정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지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이어주는 관계의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한식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닌 공감과 관계의 연결입니다.

저희 KRAI가 지향하는 성장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현지 사회와의 끈끈한 네트워크, 협력과 존중의 태도, 그리고 공존에 대한 진심이야말로 한식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본력을 가진 현지 화교 자본이 한식당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외형은 한식이지만 정작 그 본질에 의문이 생기는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식인가" 싶은 식당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한식이라는 이름이 지닌 깊이와 정통성이 흐려질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한식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한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형만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조리 방식과 정성,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전달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식당 창업은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문화적 책임이 따르는 영역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식' 이라는 이름이 걸맞은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진심 어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둥서 '2025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발전 세미나' 성황리 개최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양일간 반둥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에서 '2025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한국어교육자협회(AJARI),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KEC), KF 자카르타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한국학 교수, 한국어 전공 대학생, 중등학교 교사 및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1일차는 금년 2025년 3월 개원한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중등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보급 확산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2일차는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의 안과 밖: 교재, 교수법, 평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져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UPI 한국어교육과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긴급전화번호

경찰 범죄 및 도난 신고	POLICE (Polisi)	112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구급차 (일반)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 (SMS 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 KAI 121.....081111 2111 121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대사관 발리분관(당직폰).....0811 3831 3659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다름을 넘어 한마음으로 모인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10년 역사, 세대와 문화 잇는 한-인니 공동체 축제

학생기자 한동훈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0학년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표 행사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가 10주년을 맞아 2025년 6월 27일 땅그랑 Aula Serba Guna Citraraya Sport Club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찌뜨라 땅그랑 코리안(회장 최진덕)이 주최하고 재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후원회가 주관하는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는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재외동포재단, 땅그랑반튼한인회, 무궁화유통 등의 후원 속에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희망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다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50여 가구를 비롯해 주인도네시아 박수덕 대사대리, 땅그랑반튼한인회 박성대 회장과 전임 회장단, 코윈 인도네시아 최희정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인니 간 가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며 공동체의 역할과 연대를 강조했다. 최진덕 회장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교육과 복지의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며,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고 전했다.

1부, 2부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태권도 시범, K-POP 댄스와 인도네시아 전통무용 Solo Dance, 떡볶이, 김치 등 한식 만들기 체험, 전통 놀이와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현장에 참석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결같이 '재미있다', '다음에도 꼭 오고 싶다' 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Citra Berkat School Citra Raya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Alin과 Selin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K-pop댄스를 선보이려 몇 주간 연습했다며 뿌듯해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카르타에 한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Cheshira는 "최진덕 회장님이 직접 담아주시는 떡볶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Beverly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좋아하는 K-pop 아이들처럼 무대에서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행복했다" 고 전했고 Salisia는 "내년에도 친구들과 무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춤을 연습해 보여주고 싶다. 벌써부터 내년에 열릴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가 기다려진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왜 어린이 날을 기다리는지 알겠다." 고 말했다.

찌뜨라 땅그랑 지역에는 약 50여 다문화 가정이 거주 중이며 이혼이나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약 2/3 이상이 한부모 혹은 저소득 가정이다.

이날 만난 피나 씨 가족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대표 사례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딸을 혼자 키워온 피나 씨는 둘째 딸 유소라 씨가 UPH 의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해 실로암 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고, 첫째 딸도 한인 기업에 취업해 자립에 성공했다. 다문화 가정의 이런 사례들은 지역 사회와 민간 후원, 공동체 연대가 만들어낸 실질적인 결실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 자녀들이 사용 중인 한국어와 인도네시아 이름이 함께 소개되기도 했다. University Pamulang의 공대석 씨(Tarakanita), Citra Islami의 이아름 양, MC를 맡은 정인한 씨는 "나는 한국인이자 인도네시아인이다. 어떤 언어를 쓰든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존재는 양국 간 갈등이 아닌 연결의 상징이자 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는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구축하는 문화 외교의 장으로 진화 중이다. 친목회에서 출발한 찌뜨라 땅그랑 코리안은 현재 실질적 복지와 교육 지원을 병행하는 지역 기반 NGO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년 5월 또는 6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행사는 한-인니 양국 간의 실질적 연대와 협력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지 한인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 외교인 셈이다.

발리에서 요가 자격증 따며 한 달 살기 ②

안녕하세요, 향기님들.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달엔 발리에서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게 된 여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발리에서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하루 루틴과 요가 수업, 시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넘실대는 푸른 논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몸은 땀냄새로 가득하고, '이 고행을 앞으로 4주나 더 해야 한다니'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풍경은 그저 평화롭기만 합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명상이 아닐까요?

오후는 이론과 실기, 그리고 교감의 시간

요가의 세 번째 단계인 '아사나(Asana, 동작)'를 더 정확하게 익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자세의 원리를 배우고, 타인의 동작을 교정하는 법도 익혔어요. 영어 수업이라 약 76% 정도만 이해했던 것 같지만 그 나머지는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이후에는 해부학, 요가 철학, 다양한 요가 응용 수업이 매일 바뀌어 진행됐습니다.

금요일엔 '아크로 요가'나 '레스토러티브 요가' 처럼 색다른 요가도 직접 경험했어요. 아크로 요가 수업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을 때, 제 몸이 그렇게 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루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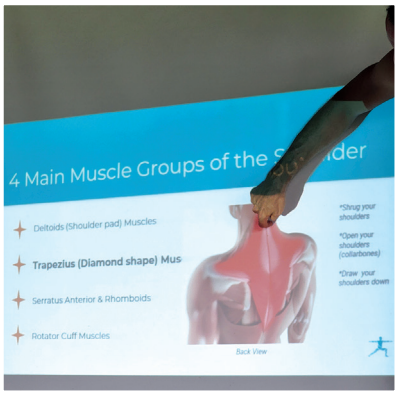
저녁 6시, 수련을 마친 몸은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요가의 8단계 계단을 오르면 하루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붉은 노을을 보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의 밥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가 되어도, 엄마가 보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요.
밥 먹기도 귀찮을 만큼 지쳤지만 하루를 꽉 채운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저녁 만찬과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지막 관문: 나를 만드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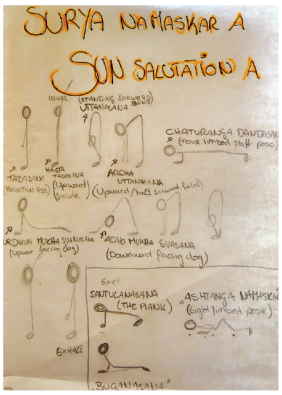
요가로 꽉 채운 하루하루가 27일을 지나면 마침내 마지막 관문이 기다립니다. 바로 필기시험과 30분간의 요가 수업입니다. 필기는 암기하면 되니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수업 시연은 전혀 달랐어요. 직접 시퀀스를 구성하고 동작 간의 연결성과 흐름, 수업의 기승전결을 고려해 모든 설명을 영어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Asana(요가 동작) 실제와 적용 수업

첫 빈야사 요가수업



Anatomy(해부학) 수업



Surya Namaskara
(태양경배자세) 노트필기

수강생 중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젊은 친구들이 연말 파티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어두운 수련장 'Shala'에 남아 울먹이며 시퀀스를 다듬고 또 다듬었어요. 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네요.

마침내 요기(Yogi)가 되다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을 마치고 국제 요가 자격증 **Yoga Alliance RYT 200**을 취득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1시간 반짜리 수업을 스스로 진행하며 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의 공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요가는 저를 끌어올리는 '수련'이 되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운동 신경이 둔한 저는 달리기도 느리고 수영도 못 하고 자전거도 탈 줄 모르지만, 요가는 할 수 있어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따라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가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느냐'입니다.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를 만나고 나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요가 매트 위에선 나의 몸과 마음이 우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땀 흘리며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특별해요.

요가 수련을 마치면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몸은 가볍고 머리는 맑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가장 나다운 내가 되어간답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요가를 하시라! 분명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테니. 그 여정을 저 미쉘과 함께 하면 더욱더 빛날 거예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유연해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나마스떼.

– 당신의 요기 미쉘

숙련된 요기들만이 할 수 있다는 아크로 요가를 해내고 스스로 놀라워하는 모습입니다.
(feat.연출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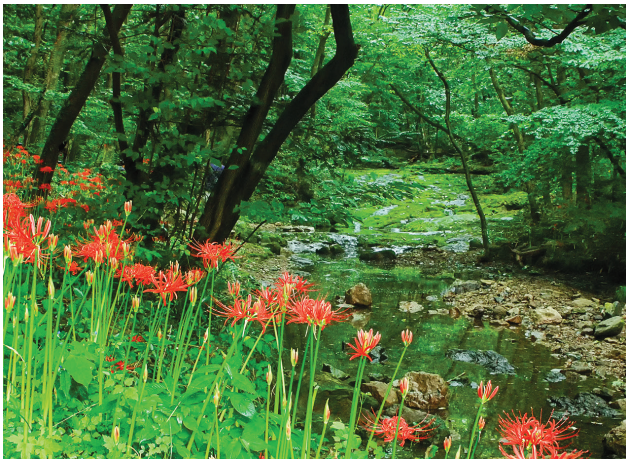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Michelle Yang
HYAANG. THE YOGA

렌즈 너머 삶의 강인함을 담다

크라카타우 포스코에서 4년, 사진과 함께한 인도네시아 기록

양진영 | 크라우카타우 포스코 근무



- □ 광양 백운사진 동호회 활동
- □ 전국 사진 공모전 입상 8회, 입선 50회 이상 수상
- □ 『한인뉴스』 커버 수차례 장식

크라카타우 포스코에 근무한 지도 어느덧 4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적도의 보석'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다채로운 풍경을 렌즈에 담고자 틈틈이 이 나라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숨바(Sumba)의 해변에서 만난 석양과 맹그로브 숲의 고요함은 말없이 다가오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브로모 화산의 일출과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장엄한 자연은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두이(Baduy) 마을에서는 전기도, 핸드폰도, 신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채 자급자족하는 그들의 일상은 인간 본연의 단단함과 고요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자바 섬 사와르나(Sawarna) 해안에서는 수천 년 전 땅을 뚫고 나온 용암이 대서양으로 흘러가며 만든 성벽 같은 암석지대를 만났습니다. 그 위에 부딪히는 파도와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의 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오늘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파도는 쉼 없이 밀려오지만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는 바위는 세월을 견뎌온 삶의 강인함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사진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는 말처럼 사진은 기억을 기록하고 감동을 저장합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취미로 삼는 것을 많은 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사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의 조우**
   그 계절, 그 장소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을 담는 기회입니다.
2. **기억을 영원히 간직**
   시간이 지나도 결과물이 소멸되지 않고 사진으로 남습니다.
3. **건강한 일상과 습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 들, 강, 바다를 찾아 다니는 여정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시켜 줍니다.
4. **삶의 품격을 높이는 기록**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면 ‘작가’ 혹은 ‘선생님’ 이라는 존칭도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숨은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가며 풍경 속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로 살아가는 통번역사의 이야기 3]

고양이 카페부터 콘서트까지, 자카르타 힐링 1박 2일

윌루증 에라닝띠아스 (아증)
통번역사 | System Ever Indonesia

고향도 아닌 먼 도시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드디어 자카르타로 다시 올라가게 됐다.

하숙집이 공장과 가까워서 그런지 시내와는 꽤 거리가 있다. 오토바이도 없으니 주말이 와도 종종 심심할 때가 많다. 수카부미는 조용한 작은 도시라 시내에 나가도 사실 볼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다. 예전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사람이..... 숨을 좀 돌려야지."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아서 나만의 숨을 돌리기 위해 자카르타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고양이 카페였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들이 자주 생각나는데, 이곳의 고양이들이 잠시나마 그 그리움을 채워줬다. 어릴 때부터 동물, 특히 고양이를 유난히 좋아해 왔던 나에게 고양이들은 언제나 작은 활력소가 되어 준다. 자는 모습, 먹는 모습,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기만 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놀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행복했다. 다음에는 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야로 걸어가~ 알아, 네 Home Ground."

에스파의 Next Level 가사처럼, 나는 롯데몰에 있는 광야 자카르타로 걸음을 옮겼다. 간단히 말하면 광야는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과 Pink Blood (팬들의 애칭)의 세계라고 보면 된다. 일종의 굿즈샵이자 팬을 위한 체험 공간 같은 곳이다.

8월 16일, 엑소 백현 오빠의 자카르타 솔로 콘서트를 처음으로 직관하기 위해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응원봉을 사러 간 거였다. 엑소 전체 콘서트는 아니지만 데뷔 10년 만에 엑소엘이 된 나에게 최애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정말 기대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다음 날엔 같은 롯데몰에서 열린 웅변대회도 관람했다.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언어를 통해 더 맑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열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8년 전, 한국어학과 입학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한국어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다는 게 그 자체로 한 장면의 대답이 아닐까.

참가자들 중에는 UNAS에서 아는 교수님과 학생들도 있었는데, 롬복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지난 1월이었으니 꽤 오랜만의 재회였다. 내가 자카르타에 온 줄 몰랐던 동생들은 나를 보자 너무 반가워하며 그리웠다고,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과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응원할 수 있어서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

수카부미로 돌아가기 전, 잠깐 무궁화 마트에 들러 장도 봤다. 나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김치와 가래떡은 냉장고에 쟁여두는 필수 재료다. 떡볶이나 김밥, 김치전은 물론 밥이나 라면을 먹을 때도 김치는 빠질 수 없으니까!

무궁화 슈퍼에는 할랄 재료가 많진 않지만, 다행히 내가 필요한 건 거의 다 살 수 있었다. 그래도 자카르타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1박 2일의 짧은 힐링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시간이었다. 자카르타는 분주하고 정신없는 도시지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다.

Indonesia Korean Wind Orchestra

I K Wind Orchestra, 인도네시아 단비학교와 감동의 'One Day Music Camp' 개최

I K Wind Orchestra | 김현진 총감독

음악으로 하나 된 하루… 영원한 울림, I K Wind Orchestra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다

Indonesia Korean Wind Orchestra(단장 김종규)는 지난 7 월 12 일(토), 인도네시아 SM SMP 단비 버르시나르(Danbi Bersinar) 학교에서 단비 브라스밴드 학생들을 위한 'One Day Music Camp'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음악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아동 · 청소년을 위해 기획된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 총 80 명이 참여해 음악을 통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뜻깊은 하루

I K Wind Orchestra 의 미니 콘서트로 시작된 이번 음악캠프는 이후 ▲악기 체험 ▲이론수업 ▲실기지도▲합동 연주를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전훈 지휘자의 편곡으로 연주된 로제의 'APT' 로 막을 올린 30 분간의 미니 콘서트는 다채로운 악기 구성과 뛰어난 솔로 무대가 어우러지며 단비 브라스밴드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악기 연주에 대한 도전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이어진 악기체험 시간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지도로 학생들이 6 개 파트(플루트, 트럼펫, 호른, 유포늄, 트럼본, 튜바)의 악기를 모두 체험하며, 콘서트를 통해 처음 접해본 악기들을 실제로 연주해 보는 기쁨을 만끽했다. 단비브라스밴드 학생들은 조별 이론 수업에서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계이름과 박자 등 악보 읽기를 포함한 기초 음악이론을 쉽게 배웠으며 실기 수업에서는 I K Wind Orchestra 단원들이 준비한 여분의 악기 지원으로2 인 1 악기로 수업을 받던 단비브라스밴드 50 여 명이 1 인 1 악기로 수업을 받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합주 수업에서는 단비 브라스밴드와 I K Wind Orchestra 의 합동 연주가 펼쳐져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경험을 했다. 이로써 단순한 교육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의 힘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이번 캠프에는 단비 브라스밴드 1 기 졸업생이자 현재 고등학생이 된 선배들이 참여해 후배들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이루었다. 음악으로 연결된 이들의 시간은, 단순한 하루를 넘어 세대를 잇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감동을 보여주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 감동은 단비학생들이 I K Wind Orchestra 단원들에게 전한 초코렛 선물과 감사 카드에 고스란히 적혀 전달되었으며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다.

미래를 여는 음악교육의 출발점

단비학교 이사장은 "이번 캠프에서 처음으로 1 인 1 악기 교육이 실현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며 "앞으로 재정을 마련해 보다 다양한 악기를 구비하고, 브라스밴드를 더 큰 규모의 교육 밴드로 성장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I K Wind Orchestra 를 이끄는 전훈 지휘자는 "민족과 언어는 달라도 음악은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다"며 "앞으로도 단비학교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 학교에서 이 같은 음악 나눔 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후 양 단체 참가자들은 "음악으로 하나되는 경험이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다", "더 배우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성과 마음이 담긴 나눔

이번 음악캠프를 준비하면서 김종규 단장을 비롯한 I K Wind Orchestra 단원들은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의 재능과 정성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학용품과 선물, 식사와 간식 등을 준비해 전달했을 뿐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교육용 교재와 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매주 시연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준비해왔다. 무엇보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단비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의 감동과 함께 꿈과 희망을 전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행사 이후에도 나눔은 이어졌다. 김종규 단장은 다음 날 단비 브라스밴드의 30 여 개 악기를 무상 수리하였으며, 단원들은 학교 도서관을 위한 도서 기부, 악보 가방 제작 및 전달 등으로 따뜻한 후원을 지속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이 I K Wind Orchestra 를 넘어 한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음악캠프 진행 및 후원문의
- 담당자: I K Wind Orchestra 김현진 총감독
- +62 0877 7520 7183 (카카오톡 Joy7983)
- ikwindorhcestra@gmail.com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뻗어가는 글로벌 교육의 허브

ACS Jakarta

학생기자 박승헌 | ACS Jakarta G11

ACS Jakarta는 Anglo-Chinese School (ACS) 계열의 일원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학문적 엄격함과 인격 함양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7월 치부부르(Cibubur)에서 Sekolah Tiara Bangsa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7월 동자카르타로 이전하면서 공식적으로 ACS라는 이름을 채택하였다.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케임브리지(Cambridge)와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융합해 "The Best Is Yet To Be(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교훈 아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 ACS Jakarta는 2026년 7월 BSD 시티에 서부 캠퍼스(West Campus)를 개교함으로써 교육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약 5헥타르의 부지 위에 세워질 이 캠퍼스는 학생들의 학문적 및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전인적 교육과 최첨단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CS 발리(Bali)는 2025년 7월에 1~8학년 수업을 개시하며, 이후 점진적으로 고학년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확장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ACS의 의지를 보여준다.

A Curriculum Anchored in Excellence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검증된 교육과정

ACS Jakarta는 매끄러운 학업 여정을 제공한다.

- Cambridge Pathway: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생들은 케임브리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국제중등교육자격(IGCSE) 시험으로 마무리된다.
- IB Diploma Programme (IBDP): 11학년과 12학년에는 비판적 사고, 연구 기술, 글로벌 인식을 강조하는 IBDP로 전환한다.

이러한 이중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고등 교육과 그 이후의 삶에서도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ACS Jakarta의 리 켄 셍(Dr. Lee Khen Seng) 교장은 이 전인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활기찬 인재를 원합니다. 단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죠."

이 교육과정은 학제 간 프로젝트, 연구 멘토링, 전 학년을 아우르는 봉사 학습 기회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

University Admissions: A Testament to Quality

대학 입시 결과로 입증하는 교육 수준

학교의 학문적 우수성은 세계 유수 대학들에 학생들을 진학시킨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명문 대학에 합격해왔다:

- 미국 및 캐나다: 하버드, 스탠퍼드, UC 버클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 영국: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대학(LSE),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 아시아: 싱가포르 국립대(NUS), 난양 공대(NTU), 서울대학교(SNU),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홍콩 대학교
- 호주 및 뉴질랜드: 멜버른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

이러한 성과는 ACS 자카르타가 학생들을 국제적 학업 무대로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CS Jakarta의 코디네이터들은 학생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대학 지원 준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학업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 안토니 파웰, ACS IB 코디네이터

Cultivating Holistic Development

전인적 발달을 기르다

학업 외에도 ACS Jakarta는 인성 교육과 다양한 과외 활동 참여를 강조한다:

- 학생 성과: 학생들은 싱가포르 및 아시아 수학 올림피아드(SASMO), 세계 수학 초청대회(WMI), 하버드 모의의회 아시아 등 여러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지역사회 참여: 독립기념일 행사와 같은 활동은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화합과 문화적 이해를 촉진한다.
- 학부모 참여: 학부모 지원 그룹(PSG)은 학교와 협력하여 보충 수업,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기획하며, 교육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학생 각자의 인격을 기르는 것에도 집중합니다. 학업과 인격의 균형이 바로 ACS Jakarta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 지오반니 디쿠냐, 학업 담당 학장

Modern, high-tech Facilities

최첨단 시설

동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8헥타르 규모의 캠퍼스는 학업과 과외 활동 양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제공한다. 학교는 초등 및 중등 전용 건물, 완비된 과학 실험실, 도서관, ICT실, 음악 및 무용실을 갖추고 있다.

- 국제 규격 축구장 및 육상 트랙
- 미니 필드 2곳
- 25m 야외 수영장
- 테니스 코트 5면
- 다목적 실내 체육관

또한 332석 규모의 공연예술 극장과 8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탄 셩 키 홀(Tan Siong Kie Hall)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수영 선수권 대회, JAAC 축구 토너먼트 등 대규모 행사의 주최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A Glimpse Into Our School Calendar

학교 일정 엿보기

ACS Jakarta의 학사 연도는 학교의 핵심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반영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친구를 사귀고 ACS Jakarta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창립기념일(Founder's Day)은 재학생, 교직원, 동문들이 학교의 전통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다. UN 데이, 리터러시 위크, 카르티니 데이와 같은 행사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미니 올림픽과 수영 대회는 팀워크, 회복력, 체력 향상을 통해 전인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성장을 격려한다.

Embracing the Future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굳게 지키며, ACS Jakarta는 학생들에게 탁월함을 추구하고 도전을 받아들이며, 세계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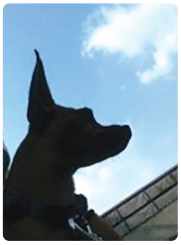
ACS의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이어지는 전통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SRC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한다. 학생들은 클랜별로 팀을 이루어 하루 동안 다양한 게임과 활동에 참여하며 협력과 경쟁을 경험한다.

올해 오리엔테이션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렸다. 쥬만지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로 드라이 게임, 웻 게임, 그레이트 워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러너(Runner)와 OGL(Orientation Group Leader)들은 규칙을 안내하고 팀을 이끌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의 열정이 오리엔테이션의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자세한 정보는 ACS Jakarta 공식 웹사이트(acsjakarta.sch.i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보안관 코코 12년의 사랑 이야기

코코



(박)코코 | 여

#박 누렁이 #인절미 #찰떡파이
#미스코리아 #보안관 #내안엔내가너무도많아

- 나이: 12살
- 생일: 2013년 10월 1일
- 견종: 미니어처 핀셔 (미니핀)
- 성격: 조용한 듯 온순한 편이지만 집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강해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량으로 우렁차게 짖으며 터프한 면모를 보여준답니다. 본인이 사람인 줄 알고 사는 멍뭉이랍니다.
- 취미: 따뜻한 걸 정말 좋아해 사우나를 즐기는 코코. 믿기시나요? 핫팩은 기본, 테라스에 나가 일광욕을 자주 해요. 그래서인지 털 윤기가 좌르르~

- 특기: 새초롬한 표정 등 표정연기의 달인. 아빠 차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듣고 미리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애교쟁이. 프로펠러처럼 빠르게 꼬리 흔들기.
- 장점: 털이 짧아서 미용비가 들지 않아요.
- 단점: 털이 짧아서 미용을 할 수 없어 대신 예쁜 목걸이나 옷으로 멋을 낸답니다.

우리 코코는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가족이 되었어요. 저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분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와 두 딸이 머리를 맞대고 인도네시아 강아지 입양 사이트를 뒤져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더니, 데려온 아이가 바로 우리 코코였답니다. 엄마에게는 아빠가 '하얀 거짓말' 을 했어요. 사무실 빌딩 경비가 말하길 너무 좋은 견종인데, 빌딩에 오는 분들 중 사랑으로 키울 만한 분께 보내드리고 싶다고.

코코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사시나무 떨듯 차 안에서 덜덜 떨며 커다란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껌딱지처럼 딱

붙어버렸지요. 그날부터 코코는 엄마의 손길과 사랑을 듬뿍 받기 시작했어요. 진아와 진서도 코코를 친동생처럼 예뻐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단추, 두부, 초코, 샤넬, 코코샤넬' 등등 수많은 후보들 속에서 결국 '코코'라는 이름이 탄생했어요. 대체로 미니핀 하면 검은 털을 떠올리시지만, 갈색 털을 가진 미니핀이 드물대요.

우리 코코는 털빛이 누렇다고 해서 누렁이 인절미, 윤기 자르르 흐른다고 해서 찰떡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해서 미스 코리아, 그리고 테라스에 얼굴만 내밀어도 모르는 차가 오거나 경비 아저씨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우렁차게 짖어대는 모습에 보안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한국에 간 진아 언니가 인도네시아 집에 오는 날이면, 꼬리가 안 보일 정도로 신나게 달려가 언니 껌딱지가 되는 코코. 영상통화하는 날이면 화면을 갸웃거리며 응시하죠.

나이가 제법 들어 하루 중 가장 큰 일이 '잠자기'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아파트 수영장에만 가면 신나서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침대에서 떨어지며 꼬리 쪽 신경이 손상돼 온 가족이 눈물 콧물 쏙 빼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사랑하는 코코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코코 덕분에 엄마, 아빠, 진아 언니, 진서가 인도네시아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벌써 12년을 함께해준 우리 코코, 지금처럼 촉촉한 콧망울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줘야 해. 정말 정말 깊이 깊이 사랑해.

집사 프로필: 김혜정(왕 집사) | 박진아(큰 집사) | 박진서(작은 집사)_자카르타 찔란닥 거주

코코는 노견이 되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지만
봄날 마당을 채우던 발소리와 웃음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종 교 법(Hukum Agama) (4)

전호에서 계속

8. 개신교 교단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교회의 연합체 조직/교단(Induk Organisasi Gereja/Synode)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2종류가 있다.

8.1. 개신교 교단 등록 의무
8.1.1. 신규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교단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1.3. 교단 설립 이래 역사 요약서
8.1.1.4. 인도네시아 전체 주(현재 38개 주)의 25%(10개 주)에 교회 지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지방청 확인서
8.1.1.5. 전체 교인이 최소 10,000명이라는 지방청의 확인서(*교인 최소 10,000 명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8.1.1.6. 교단의 조직표
8.1.1.7.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8.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9.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1.10.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교단 내부에 진행 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1.13.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총회 회의록

8.1.2. 재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2.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2.2. 해당 교단이 현재 활동 중이며 재등록 신청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2.3. 개신교청장의 해당 교단 등록결정서 사본
8.1.2.4. 교단의 조직표
8.1.2.5.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2.6.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2.7.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2.8. 년간 활동 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2.9. 교단 내부에 진행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2.10.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공증인 작성 총회 회의록
8.1.2.11. 임원 개선이 있는 교단은 임원 개선 개정 정관 사본
8.1.2.12. 재등록 신청은 전 등록 결정서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8.2. 신규등록 결정서 및 재등록 결정서
8.2.1. 심사 절차
8.2.1.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서류 심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2.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를 한다. 현장 실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3. 서류 심사 결과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놓고 최종심사를 한다.
8.2.1.4. 최종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ftaran)를 발급한다.

8.2.1.5. 등록결정서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2.1.5.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2.1.4.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2.1.4.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2.1.4.5.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일자 및 번호
8.2.1.4.6.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2.1.4.7. 개신교 교단의 이름 및 주소
8.2.1.4.8. 개신교 교단 설립일
8.2.1.4.9.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8.2.1.4.10. 등록결정서 발급기관 이름
8.2.1.4.11. 등록결정서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2.1.4.12. 등록결정서 발급기관의 직인

8.2.2.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3. 교단의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3.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3.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4. 교단 및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Pembinaan) 및 감독 (Pengawasan)
8.4.1. 개신교청(Direktoral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종교성 지방청 개신교 지도 담당국장은 관할 구역 내 교단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시/군 단위 종교청 사무소는 시/군 관할 지역 내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다.
8.4.2. 지도는 협력(koordinasi), 지도(bimbingan), 교육(pendidikan) 및 훈련(pelatihan), 감독(supervisi), 자문(konsultasi), 교단의 자료 분석(pengembangan data base) 방법으로 지도한다.
8.4.3. 협력, 지도, 교육 및 훈련, 감돌, 자문 및 자료 분석은 단계적으로 한다.
8.4.4. 위 협력, 지도, 교육 및 훈련, 감돌, 자문 및 자료 분석은 전국 단위 교단 연합체 기관과 협력하여 할 수 있다.
8.4.5. 교단에 대한 감독은 모니터링(monitoring), 제어(pengendalian) 및 평가(evaluasi)를 통해 감독한다.

다음 호에 계속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1540
하나유치원	844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뽄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둥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퐁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뽄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끄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쯤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뽄독삐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끄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뿌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 아시안 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온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북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 식당	0852 1506 121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4007-7256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동호회 모집]
자카르타 한인 빠델(파델) 테니스

초보자 환영 / 50명 참여 중
문의: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LKWilah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찔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옥) 0811-951-762

반 둥

반둥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둥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둥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둥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깔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헌) 62-8115400-863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헌)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